

## 한의학 비방 중단 촉구

### 한의협, 허준 선생 비방 양의계에 강력경고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허준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선정적 제목의 서적이 출간된 것을 계기로 촉발되고 있는 양의계의 노골적 한의학 비방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의협은 지난달 12일 성명서를 발표, 지성인의 단체를 자처하는 의사협회 및 그 산하단체인 내과의 사회가 '허준이 죽어야...' 서적을

마치 베스트셀러인 것처럼 국민에게 호도하기 위하여 의협 직원으로 하여금 조직적으로 구매, 국회 및 사회여론 주도층에 배포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업권 확대를 위한 한의학 비방은 그들이 한민족으로서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케 하는 악랄한 반민족적 책동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민족의 빛나는 문화유산인

동의보감은 이미 그 의학적, 문헌적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인 허준 선생에 대한 자극적 비방을 동원하는 것은 세계 속에 자랑해야 할 동의보감을 펼쳐 하여 스스로 선현의 후예임을 포기한 반국민적 배신행위라고 비난했다.

한의협은 성명에서 의사협회를 비롯한 양의계의 이 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민과 함께 강력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 한방상식

## 한약 복용에 꼭 필요한 정보

### ○ 복용시키는?

몸을 보하는 한약과 위장질환을 치료하는 한약은 공복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 소화를 돋는 한약과 위장에 자극이 있는 한약은 식후에 복용하며, 불면증에 사용하는 처방은 취침 전 복용한다. 복용 직전·직후에는 음식은 물론 물이나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 ○ 차게? 데워서?

한약은 일반적으로 데워서 복용한다. 그러나 보하는 약은 미지근하게, 감기 등 몸의 열을 발산시키는 약은 조금 뜨겁게 복용해야 한다. 반면 몸 안이 차가워서 나타나는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밖으로는 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차게 복용해야 한다. 데우는 방법은 끓는 물이나 전자레인지가 좋다.

### ○ 함께 먹으면 안되는 음식

몸 안이 더운 증상일 경우 매운 음식을 피하고 차가운 증세라면 과일이나 찬 음식을 피해야 한다. 부종에는 짠 음식을 피하고 횡달이나 설사에는 기름진 음식을 피한다. 또 부스럼이나 피부병에는 돼지고기, 양고기 등을 피한다.

인스턴트 식품은 피하는게 좋고 무는 약효를 빨리 사라지게 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녹두는 한약 해독 작용이 있어 약효를 절감시킬 수 있으며 돼지고기는 뜨거운 성질의 약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감소될 수 있고 숙지황은 기름기가 있는 약의 경우 소화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 ○ 보관기간은?

파우치에 담긴 한약이라 하더라도 가급적 오래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냉장보관하고 상온에서 장시간 노출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자료 인용 : 민족의학신문)

## '사상의학 건강보험' 국내 최초 등장

### 체질에 따라 가입플랜 선택, 신한생명

한의학이 가진 독창적 분야인 사상의학을 보험에 접목시킨 건강보험 상품이 국내 최초로 등장했다. 신한생명은 보험업계로서는 처음으로 한의학에 기초한 사상의학을 접목, 개인의 체질별 보장을 최적화 한 '사상의학건강보험'을 지난 달부터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체질에 따라 4종(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의 가입플랜을 선택할 수 있는데, 각 체질별 발생하기 쉬운 5대 질병을 특화하고 한국인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태음인의 경우 고혈압, 천식, 궤양성 대장염 등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 치료시 더욱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사상의학은 일종의 체질의학으로서 대소변, 혈액, 유전자 같이 물질을 분석해서 판별하는 것 이 아닐뿐더러 아직까지 정통 한

의학 이론에 융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자칫 변증방법이 서로 상치하는 경우 보험사와 피

보험사간 시비거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월간 한국양육 광고 문의  
☎(02)969-6600

## 한의약 청 신설 건의 한의협, 현식약 청 조기 한계 지적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최근 한약사(韓藥事)에 관한 관리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한의약 청' 신설을 정부에 건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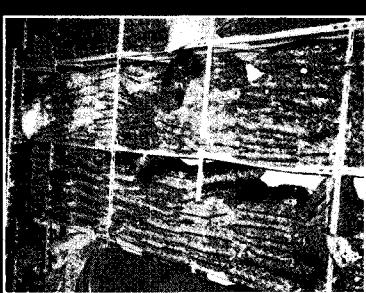
한의협은 이와 관련 현식품의약 품안전청 조직으로는 한의학적 원리와 한의약학적 관리체계 아래 한약관련 제반사항을 운영하기에는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식의약 청 조직 중 의약품 및 생약평가부 인력 대부분이 한의학 전문지식을 갖추지 않은 약사 위주로 구성돼 양약 편향

적 정책 속에 한약이 포함돼 제대로 관리 운영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한의협은 한약의 원리는 서양학에서 비롯되는 구조성분론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한약은 한의약적인 원리에 의해 사용되는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서양의학적 시각으로 한약의 유효성·안전성 및 독성을 평가하게 되어 한의학에서 널리 인정되는 효능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금산 녹원약업사

오랜 전통의 경험으로 사슴, 녹용에 가장 알맞는  
고품질 한약재를 정성껏 공급하겠습니다.



최고의 품질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김종호

- 국산한약재 전문
- 십전대보탕, 녹용탕, 녹중탕 재료
- 각종 희귀 한약재
- 많은 사슴농가와 거래중이며 한약관련 모든 상담을 환영합니다.
- 24시간 상담가능

주 소 :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565

점 포 : 041)753-8815

휴대폰 : 011-452-8815

온라인 : 예금주 김종호

농협 : 403-02-299498

우체국 : 311159-0176293